

서울 봉은사가 올해 담근 김치는 1만 포기에 달한다.





종로노인복지관에서 전달한 김치로 따뜻할 겨울을 날 어르신.



조계종복지재단은 김치 2만 4800포기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서울 조계사는 12월 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조계사 김장 나눔전'을 개최하고 8000kg 상당의 김치를 담궜다.



조계사 김장 나눔전에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올겨울 취약계층 김장 김치 우리가 책임진다"

전국 사찰 · 복지관 김치 나눔 현장

조계사, 8000kg 관내 소외이웃 전달
봉은사, 400여 대중 1만 포기 담궈
연말연시 김장김치 자비나눔 이어져

복지기관도 대규모 겨울나기 나눔
조계종복지재단, 2만 4800 포기 등
강추위에도 김장 나눔 온기 '훈훈'

신성민 · 노덕현 · 임은호 기자

전국 사찰과 불교계 복지관에서 경제 한파 속에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소외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김장축제가 이어지고 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 이하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교계는 사부대중의 자비나눔 온기로 훈훈하기만 하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2월 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조계사 김장 나눔전'을 개최했다. 이날 김장 나눔전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해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앞치마와 고무장갑, 헤어캡 등으로 무장한 사부대중은 배추 8000kg, 약 4000포기에 달하는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날 나눔전은 조계사 신도회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해남군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절임배추를 기부해 이뤄졌다. 특히 이날 나눔전에는 조계사 어린이집 원아 40명도 김장체험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사부대중이 정성스럽게 만든 김장김치 가운데 3000포기는 종로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도 12월 3일 매서운 바람을 견디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이웃과 함께하는 2022년 봉은사 자비 김장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한 사중 스님들과 신도, 산하기관 종사자 및 봉사자들만 400여 명. 첫눈이 내리는 가운데 봉은사 주차장 마당에 마련된 천막 안에서는 이들이 저마다 모여 김치속을 채우고, 포장하며 바삐 움직였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만들어지는 김장김치의 양도 엄청났다. 전체 김치는 1만 포기에 달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도 직접 김장에 나섰다. 원명 스님은 "김장을 축제로 여는 것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1만 포기의 김치를 담그는 일이 힘들지만 이웃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나눔에 동참하는 단체들도 눈길을 끌었다.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해 이번 김장축제에 10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윤석일 봉은사 거사림회 회장은 "도심 한복판 천년 사찰에서 이웃을 위한 김장축제를 하는 것에 무한한 영광"이라며 "앞으로 봉은사가 그늘진 곳에 많은 촛불을 밝히리라 본다.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한다"고 덕담도 전했다.

이날 김장에 사용된 배추는 평창 고랭지 배추로 봉은사 측은 좋은 김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고랭지 배추를 선택했다. 이날 담근 1만 김장김치는 삼성1 · 2동 주민센터를 통해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에 전달된다.

불교계 복지기관들도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겨울나기 나눔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교계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겨울철 최대 먹거리인 김치를 비롯해 난방비 등을 지원하며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가고 있어 훈훈함을 더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2월 6일 서울 SK행복나래에서 SK그룹,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중앙회원들과 함께 '2022 SK행복나눔 김장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김치는 SK스토아 방송에서 판매된 김치양만큼으로, 2만 4800포기에 달한다. SK스토아는 9월 22일 평창꽃순이김치 첫 방송을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3억 130여만 원의 판매 수익금을 낸바 있다. 김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전국 복지관으로 전해져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나눔 마음으로 20여 년간 이어온 'SK행복나눔김장'은 우리 사회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이라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는데 힘을 얻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1월 21일부터 12월 9일 종로구 내 혹한기 취약계층 어르신 500가구에 김장김치와 난방비를 전달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실시했다.

'따뜻한 겨울나기'는 지역사회 내 취약 어르신의 겨울철 건강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LX판토스, 한국마사회 종로지사, 아워홈, 하이트진로, 한국무역공사의 지원으로 각 가정에 정성 가득한 김장김치와 난방비를 전달할 수 있었다.

특히 추운날씨에도 자원봉사자가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안부확인을 통해 어려움 공감과 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전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날씨가 많이 추워진 요즘, 김장김치 나눔을 실천해준 단체 및 기업과 자원봉사들의 정성으로 종로구 내 어르신께 온기를 전달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여러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완)도 11월 30일, 이마트 은평점 · 수색점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3.5kg들이 김치 212박스를 지원했다. 이마트 은평점은 2016년부터 신사복지관 경로식당 어르신을 위해 급식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수색점도 함께 후원에 동참, 훈훈함이 배가 됐다.

관장 지완 스님은 "지역 어르신을 위한 자원봉사뿐 아니라 후원까지 해준 이마트에 감사하다"면서 "덕분에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인사했다. 이마트 은평점은 "작지만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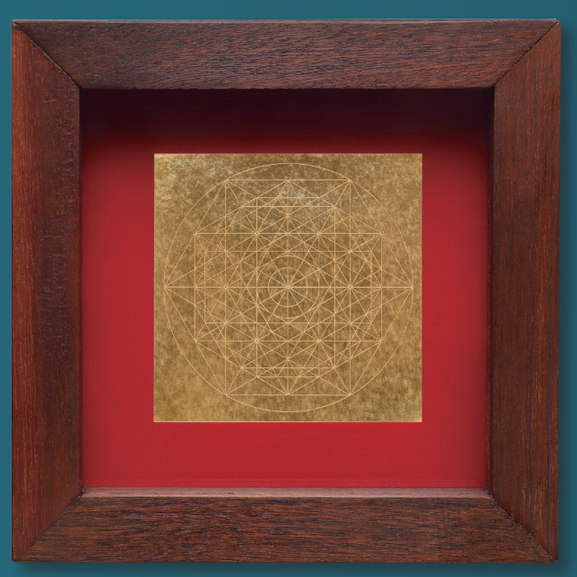
신중동종합복지관(관장 최영)은 11월 21일~12월 9일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 부천시 신중동 지역 취약계층 588세대에 김치를 전달했다.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업무협조로 중복 대상을 최소화해, 최대한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영 관장은 "매년 지역사회 나눔활동으로 전달되는 김장김치가 취약계층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성)은 12월 3일 '2022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재가장애인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60여 명의 자원봉사단체 회장단과 함께 600포기 김치를 담궜다. 김치는 10kg 상자에 담겨 경주지역 장애인 150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종성 스님은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한국인의 밥상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먹거리인 김장김치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몸과 마음에 유익한 氣를 발생시키는 제품 퀀텀참

QUANTUM CHARM!



정면 12×12cm, 측면 두께 4.5cm
순금판을 이용한 실제 제품 사진입니다.
옆에 두어도 뇌파,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퀀텀참은 양자파동을 내는 부적이란 뜻입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여러 부적을 사용해왔는데 그중 가장 수승한 것이 천부인(天符印)입니다.

퀀텀참은 천부인의 재현에 해당됩니다. 퀀텀참은 뇌파, 맥파를 안정시키고 생체자기장(오라)을 상향시킵니다. 뇌파, 맥파는 최정미 박사님의 예비시험에서 확인되었고 오라는 이영좌 교수님의 시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기의 사용은 오라를 하향시키는데 퀀텀참을 간섭시킨 보조배터리(충전할 때 퀀텀참을 전선 위에 둠)를 사용하면 오히려 상향됩니다.

퀀텀참의 기가 전자에 얽혀 배터리에 저장됨으로써 휴대폰 사용 시 소리와 영상을 통해 기가 증폭되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 휴대폰의 소리와 영상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이 있지만 다른 파동을 간섭받으면 고유파동이 변하게 되며, 특별한 여건에서 수준 높은 상위의 파동을 간섭받으면 받은 파동이 얽히게 되어 얽힌 파동을 지속적으로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료가 순금으로 된 미묘한 기하학적 구조일 때 더 수준 높은 파동이 증폭되어 나옵니다.

전설의 금척, 천부인도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 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동경잡기, 삼국유사, 부도지 본문과 증심록 추기 등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부도지에서 천부인을 천지본음지상(天地本音之象)으로 묘사하고, 부도지 증심록 추기에서 금척을 '허실지수 구이성십 차즉천부지수야 (虛實之數 九而成十 此則天符之數也)'로 나타내는 것은 대단한 비밀입니다. 순금으로 미묘한 기하학적 구조를 만들고 이것에 천지의 수승한 기(氣), 수준 높은 상위 세계의 기(氣)를 전이시키는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시춘추에서는 천부를 성,명,정과 연계시키고 있으며 목은문집에서는 비서[(祕書)풍수비전]의 이치가 천부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의역). 풍수비전은 전후,좌우,상하로 분열되는 기가 중앙으로 응축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천부에 부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 명, 정(性命精)의 원리는 연정, 연기, 연신(練精, 練氣, 練神)인데 간단히 말해서 기를 닦아 그 수준을 높이고 높아진 기에서 발생되는 마음으로 진리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기 수준에 비례하므로 기 수준을 높여야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곧 천부사상입니다. 천부인은 이 철학을 내포하는 동시에 수승한 기를 내는 신물입니다. 천부인을 부도지에서 천지본음지상이라고 한 자체가 천지의 수승한 기가 천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금척도 천부인과 궤를 같이 하므로 금척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증심록 추기에서 김시습은 훗날 누군가 금척을 재현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부도지에서도 천부를 옥에 새겨 이용했다고 했으니 이것도 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퀀텀참은 이런 것에 부합하는 기를 내는 재현제품입니다. 퀀텀참은 소리, 영상, 빛 등에 공명하여 기를 좋게 하고 뇌파,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 소리, 영상화면, 빛의 수준을 좋게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산업적,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기전도율, 영상, 음향, 표면장력, 혈액점도, 활성산소, 인슐린 등을 시험해 볼 계획입니다. 퀀텀참1 외에 2,3,4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퀀텀참의 금판은 999.9‰이고 중량은 약 4.29g입니다. 정가는 500만원이고 일정기간 350만원에 보급합니다. 주문 시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리산 홍명 밀행자

정가 500만원 특판가 350만원 구매문의 시산 010-3775-9981